

K-문화정수

영암 구림마을, 사계절 관광명소로 만든다

‘헤리티지 프로젝트’ 바탕 전남형 균형발전 공모 도전 왕인박사유적지·도기박물관 등 명소 연결 관광지 개발

영암군이 2천200년 역사의 군서면 구림마을을 사계절 찾는 관광명소로 개발한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삼고 ‘2024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도전한다.

한옥과 사유도기, 왕인박사·도선국사·최지몽·한석봉 등 전통문화유산인 헤리티지(Heritage)를 바탕으로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박물관, 하정옹미술

관, 상대포역사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등 명소를 연결하고 K-문화의 정수를 알린다.

특히 ▲헤리티지 교육관(한옥, 한국 전통문화 전문교육관) ▲아티스트 레지던시(창작활동관) ▲구림 스테이 ▲구림 웰컴관 등을 조성해 왕인문화축제 등 봄철 벚꽃축제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구림마을을 세계적인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로 바꿀 계획이다.

나아가 헤리티지의 리노베이션으로 전통건축과 목공으로 영암의 멋을 알리



영암군이 군서면 구림마을을 사계절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영암 헤리티지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은 구림마을 한옥 풍경. <영암군 제공>

고 전통음식과 전통주로 영암의 맛을 소개하며 전통공연과 행사로 영암의 흥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지난 8-10일 구림마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를 찾은 마을주민, 관광객 등에게 헤

리티지 프로젝트를 알렸다. 또한 이 사업의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 타당성·효과성 등을 공유하

며 호남 3대 명촌 구림마을의 명성을 세계 명촌으로 가꾸는 일에 함께 해주길 당부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구림마을의 전통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해 한옥을 필두로 한 K-문화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도록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 균형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주도로 특화지역을 연결해 미래동력산업을 발굴·추진하는 곳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모범 정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내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국회 방문...삽진항 설계비 등 현안사업 재정 지원 요청

박홍률 목포시장이 2025년 정부 예산안 체결위 심의 일정에 맞춰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홍률 시장 등을 포함한 방문단 7명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2025년도 국비 예산과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에게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건의했고, 서울로 이동해 박정 국회 예결위위원장 등 국회 예결위 위원들을 면담했다.

또 목포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 울산 남구를 김기현 국회의원(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 광주 동구 안도걸 국회의원(예결위 간사), 강원 춘천갑 허영(예결위 간사) 국회의원, 전북 군산갑제부안을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국회의원 등을 연이어 면담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중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증액을 요청한 중점 사업은 ▲목포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기본조사 설계비 지원(5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101억원) ▲목포 옛 수협위관장 복합문화공간조성(7억원) ▲남해안 철도(보성-임성리) 건설 및 전철화(172억원) 등이다.

박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와 세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국비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이 제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막힘없

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과 광범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초부터 국비 확보가 절실한 현안 사업들을 발굴한 후 이들 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시는 2025년 정부 본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2일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박홍률(오른쪽) 목포시장이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목포시 제공>

신안 압해읍 송공항서 ‘섬 우럭축제’ 열린다

22-23일 우럭회 시식·낚시 체험·공연 등 행사 풍성

신안군은 11일 “압해읍 송공항 일원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섬 우럭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신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 장소를 수산지인 흑산도가 아닌 압해도(송공항)로 선정된 것은 풍랑으로 인한 선박결항 우려와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다.

또한 송공항은 신안 지역 수산물을 횡감 등으로 판매하는 음식점 거리가 형성돼 있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수산물을 접하고 맛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축제의 주요 수산물인 우럭은 신안군 흑산군도 일원에서 주로 양식한다.

2023년 흑산 수협 위판 현황은 1천595t, 178억원이었으나, 2024년 10월 말

현재 1천598t, 230억원으로 위판액은 전년 대비 20-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여름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인한 경남과 충남 등 양식 어장의 집단 폐사가 원인으로 위판가는 kg당 2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형성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동안 개최되는 축제 기간에 우럭회 시식과 낚시 체험, 경품 추첨, 노래자랑,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며 “방문객들은 늦가을의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양훈 기자

영광군, 핵심 공약사업 추진계획 점검

민생 경제 회복 지원금 등 총 80개 사업 논의

영광군은 “최근 군정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세일 군수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 발전 5대 핵심 공약인 ▲민생 경제 회복 지원금 ▲평생연금 ▲복지 영광 실현 ▲농산물 가격보장제 확대 ▲체험·체류형 관광 명소화 사업을 포함한 총 80개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예산확보,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검토했다.

영광군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보완해 공약사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군 대표 누리집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공개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배심위원단을 구성,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군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영광군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공적으로 공약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군이 오는 12월29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가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가을철 산불 제로화’ 총력 대응

내달 29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운영...포상금·캠페인 추진

완도군이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12월29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산림과 접한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약 70%를 차지함에 따라

군은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 산불 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고자 관내 전 산림에 대해 인화 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금지 행위를 공고한다.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천870ha의 산림은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해 집중 관리한다.

완도군은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진화 장비를 점검했다.

산불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산불 취약지(읍-면) 대상 산불 방지 교육 등 홍보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산불로부터 군의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은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그림으로 다시쓰는 자산어보’ 특별전

다산박물관서 14일부터 내년 5월까지...점자·음성 관람 지원

강진군 다산박물관은 11일 “오는 14일부터 2025년 5월11일까지 특별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실화 정신과 더불어 그의 학문적 열망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에 기록한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그는 바다생물을 통해 실화 정신을 실천하고 섬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자 했다.

자산어보의 완성 과정에는 정약용의 제자 이칭(李暕, 1792-1861)의 문헌

고증이 더해져, 공동연구서로서 더욱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번 전시는 이칭의 기여와 실학자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정약전이 생각했던 자산어보의 당초 구상인 그림백과 형태로 구성됐다. 전시는 총 6부로 나뉘어 1부 자산어보 속으로, 2부 나눔과 묶임으로 한눈에 속, 3부 보고 듣고 알아내다 4부 이름을 짓자 5부 쓰임을 찾자 6부 그림백과로 쓰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점자 및 음성 지원 패널,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낮은 전시물,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 또한 최대한 한자를 배제하고 현대적 명칭을 사용해 쉽게 설명,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정약전의 생물 분류 방식에 따라 비늘이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겹테기가 있는 생물 등으로 나눠 관람객이 판을 올려놓으면 해당 생물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산어보에 기록된 해양생물 131종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풀어내 학문적 의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다산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은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식전 공연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간 운영

15일까지 무료 접종...대상 제외자 1만1천원 비용

무안군은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집중 예방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생까지), 13세 이하 어린이(2011년생까지), 임신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무안군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기증등록신청자 등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 외 군민은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비 1만1천원으로 무안군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무안=김성호 기자